

규범적 진로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

- 진로 의사 결정에서의 우연의 영향 -

송병국 · 이재식*

순천향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The Critics on the Normative Career Development Theory

Byeong Kug Song and Chae Shik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Normative models for explain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are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career counselor to help a client understand and influence the factors affecting his career. Actually, the particular people and life events that are unpredictable and subject to chance often influence on career behavior. Therefore, it is needed the development of a models of career decision-making that recognizes both normative and chance influences.

The focus in this article is on 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making within various life contexts and the recognition that individuals may prepare themselves to use unexpected opportunities i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I. 시작하는 말: 규범적 진로발달 이론의 한계

인간은 누구나 '가치'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가치는 물론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것은 또한 '노동'을 통해서만 창조되고 생산되는 것이다. 예술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내는 것도 가치의 창조요(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노동), 농민이 식량을 생산하는 것(물질적인 가치, 육체적인 노동)도 역시 가치의 창조인 것이다. 즉 우리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할 때만이 인간으로서 존재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평생동안 사회적으로 유용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어느 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만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개인의 생득적인 지위나 환경보다는 획득한 직업에 의해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결정되는 직업중심 사회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형식과 질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업을 개인이 어떻게 탐색하고 선택하는가는 그동안 직업심리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등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다루어져왔다(Salomone, 1981; 25).

1908년 Parsons의 직업선택이론이 등장한 이후 진로발달 및 직업선택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발달되어 왔다. 대부분의 진로발달 및 직업선택 이론은 개인의 직업선택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요인이나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직업선택 이론의 선구자인 Parsons가 직업선택 과정으로 제시한 세 가지 과정(자기이해 과정, 직업의 특성 이해 과정, 그리고 자신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현재까지 발달된 진로발달 및 직업선택 이론들의 공통점은 직업선택은 근본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정형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이다(Salomone, 1981; 25).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변에서 우연(chance: 우연 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기회, 만남, 사건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적인 요소에 의하여 개인의 진로가 결정됨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심리학자 융(jung)은 1950년대 발행한 그의 저서 'The I Ching' 서문에서 "사람들의 노력 가운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은 우연히 나타난 난처한 일이나 위험을 극복, 또는 처리하는데 쓰여진다"고(Miller, 1983; 18)하면서,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이 인생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Miller와 Form(1951)은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나 진로선택이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로 및 직업 선택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로 의사 결정에 관한 완벽한(정형적인) 인과관계 모델(error-free causal

models)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의 영향을 무시하거나 부분적으로 최소화하고 있다(Seligman, 1981). 지금까지 발달된 진로 의사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델은 특성-요인 이론,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접근 이론, 직업선택을 발달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직업/진로 발달 이론, 직업선택을 인성표현으로 설명하는 인성 이론, 직업선택 과정을 행동주의 접근(behavioral approach)으로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Osipow, 1983) 등 크게 다섯가지로 유형화되는데, 이들 이론적 모델들은 한결같이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는 보편타당하게 적용가능한 정형화된 양식(normative patterns)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개인의 진로 의사 결정은 어떤 원칙이나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 이론이 제시하는 원칙이나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원칙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로를 준비만 하면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이론은 진로선택과정에서의 우연한 기회나 예상치 못한 사건과의 만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업인의 진로 및 직업선택 과정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진로 발달이론을 분석한 Vondracek, Lerner, 그리고 Schulenberg(1983) 등은 진로 발달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과 상황적 접근을 적용하지 않는 규범적 발달이론들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은 진로/직업선택을 '단계'나 '과정'으로 보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여러 사건의 부침(deflection과 enhancement)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Gergen(1977)은 보편타당하고, 단면적인 진로 발달 이론의 부적합성을 지적하였으며,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로발달의 논리적인 편차를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하였다(p. 139). 이와같이 많은 사람들의 진로발달 및 선택

택 과정을 보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규범적인 이론들은 한편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여러 사건이나 개인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타자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나 요소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사건만큼이나 진로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Bandura, 198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규범적인 진로 발달 모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논리적 체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개별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있어서 논리적인 수정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인 진로발달 이론의 특성을 살리면서 진로선택이나 발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을 고려한 새로운 진로의사 결정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II. 진로발달 및 선택에 있어서 우연성의 영향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이 개인의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특히, 성인의 진로발달을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인과 관계(reciprocal causality)로 설명하는 모델들이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Cabral & Salomone, 1990;7).

Krumboltz(1976)는 진로선택에 사회학습 이론을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인생의 여러 사건들이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개인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 학습의 토대를 제공하는 인생의 여러 사건들은 계획되어질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Krumboltz가 기술한 것처럼 사회학습은 일반적으로 도구적(instrumental)인 속성을 지니거나 연상적(associative)인 속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도구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 또는 기술로 어떤 결과를 생산해 내도록 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상적 학습(associative learning)은 개인은 이전의 관찰이나 경험을 토대로 주변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일반화된 반응을 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은 공통적으로 주변의 새롭고 낯설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 행위는 초기 학습(이전 학습)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입각하여 진로선택 과정을 분석한다면, 직업선택기의 개인은 초기의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특정 직업군을 선호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 직업군에 입직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개인은 그의 진로준비/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롭거나 예상치 않은 환경에 종종 반응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개인의 직업군 선호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성격 특성 발달을 연구한 Clausen(1964)은 성격 특성 역시 개인과 예기치 않았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새로운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한편으로 개인에게 새로운 목표나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목표를 붕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열쇠는 인생의 여러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의 내용과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은 내적 논리상으로도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우연적인 사건이나 요소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Bandura(1986)는 메타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인지이론을 주장하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사

회인지이론이란 1) 인지와 기타 개인적인 요소, 2) 환경의 영향, 3) 실제행위(동) 등 3요소 간에 역동적이고 쌍방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이론이다. 이들 3가지 요소 서로가 각각에 미치는 영향(상대적인 강조 및 방향)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내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Bandura도 역시 우연한 사건의 영향은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요소나 사건 등의 우연성'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평생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보여진다. 평생 발달 모델(life-span model) 또는 상황적 발달 모델(contextual model)에서는 발달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제 측면이 조합되는 다면적인(multifactorial) 것으로 이해하며,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각 개인을 자기 발달의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본다(Featherman & Lerner, 1985). 개인이 자기가 접하는 예기치 않은 주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가를 자기 발달의 관건으로 보는 것이다.

Bronfenbrenner(1977)은 인간 발달 생태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성장하는 인간과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환경, 그리고 그런 환경을 잉태시킨 보다 큰 사회적 환경 상호간에 진보적인 적응'이라고 보았다(p. 514).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주변 환경이 수시로 변화함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발달은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Caplow(1954)는 실질적으로 우연적인 사건은 각 개인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욱 그들의 직업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p. 214), 전문직, 숙련직, 반숙련직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사전 준비, 계획, 그리고 우연적인 요소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한 Hart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숙련직과 반숙련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이 직업선택의 중요한 변수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Harts et. al., 1971). 또한, 30-50대 나이의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Roca와 Baruch의 결과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이 선택한 직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연한 사건 또는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그들의 직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응답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서로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는 6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숙련노동자와는 다르게 비숙련노동자들은 그들의 직업을 우연한 기회에 의해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Hart, Raynor, & Christensen, 1971). 대학 졸업자들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입직자중 약 72%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예기치 않았던 요소나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학력이 높은 대졸자들도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aumgardner, 1977).

이상과 같이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들이 개인의 진로 발달 내지는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가 하면,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도 상당수 있다. Crites(1969)는 직업 선택과정을 서투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만이 우연성이론(chance theory)을 진로 발달 이론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혹평했으며, Capal(1954)도 우연성이론은 대체적으로 직업 선택에 대해 잘 모르는 학자들에 의하여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다소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Osipow(1973)는 '심리학자들은 가능한 한 우연적인 변인이나 요소들을 피하거나 무시하려 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이론에서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직업 선택시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이 미친 영향을 비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남녀 917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한 Salomone(1981) 등

은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들이 직업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업선택에서의 우연적인 요소들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연구대상들로부터의 자료수집에 있어서 과거 회상법을 이용했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과거회상법은 개인의 진로 및 직업선택 요인을 명확히 규명함에 있어서 그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도 개인이 과거를 회고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연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Salomone, 1981).

개인의 진로발달과 우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요즘 진로발달 이론은 종래의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발달론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발달은 개인이 접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에 좌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개인이 부딪치는 주변환경은 수 많은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됨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진로발달이나 직업선택은 불가불 우연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예기치 않았던 요소나 사건들이 결정적인 정보나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경우, 진로교육 및 상담에서 어떻게 개인이 그와같은 우연한 사건이나 기회를 직업선택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을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요구된다. 우연한 사건이나 기회를 자신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진로교육이나 상담시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능력인 것이다.

Ⅲ.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의 통제가능성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이 개인의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평생발달심리학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진로발달 및 직업선택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사실이다(Bandura, 1982). 그렇다면 개인은 자신의 진로발달을 위하여 자신이 접하게 되는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고, 그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연이라는 단어가 의미상으로 통제의 부재 또는 불능을 암시하며,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음을 시사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연의 통제가능성을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 자체 보다는 개인이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평생발달 심리학과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우연의 중요한 가치는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전체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어떻게 세련되게 우연적인 사건에 반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Krumboltz는 '계획하지 않은 사건을 우연(chance)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1976:18). Pasteur의 유명한 '우연은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선호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그들의 인생에서 우연한 만남과 사건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같은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들을 자신의 진로발달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andura(1986:28)는 우연성을 '잠재적인 영향의 선택적인 실천'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실례로서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책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자의 예를 다

소 발전시켜 보면, 책은 사람이(계획적이든 아니면 우연에 의하던) 그 책을 발견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논리이다.

진로 의사 결정시 우연성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Salomone과 Slaney(1981)는 '우연적인 요소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연 요소들을 인생에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은 계획성과 개인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비슷하게 Roeca와 Baruch(1967)는 우연한 만남은 개인들이 그것의 의미만 잘 파악한다면 의사결정의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고 관찰하여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이 인생에 미칠 수 있는 힘을 암시하고 있다.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의 통제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첫째는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나 만남으로서 큰 사건에서부터(가족의 죽음, 천재 지변 등) 사소한 것(부분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또한 계속적으로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모든 개인은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에 대한 인식과 반응(극복)에 있어서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나 만남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조절하여 진로 발달의 호기로 이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능력이 있다기 보다는 완전히 그것에 의해 지배되고 마는 경우가 있다. 각 개인이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을 진로 발달에 얼마나 유효하게 이용하는가는 이처럼 개인에 따라서 상이한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성격과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Cabral & Salomone, 1990; 10-13).

첫째는 개인의 통제(locus of control) 성향이다. 각 개인의 통제 성향은 개인이 접하는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외적 통제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진로결정을 주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맡기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이나 만남의 영향을 쉽게 받지만, 그들은 자신을 환경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을 적절히 자신의 직업선택이나 진로 발달에 활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갑작스런 해고나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포기하거나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통제성향(locus of control)이 개인의 직업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Denga(1984)가 200명의 남자고등학생들에게 그들의 직업 선호 동기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 내적 통제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그들의 직업을 내재적인 영향(intrinsic influences)에 의해 선호하지만,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외적 통제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우연한 사건이나 행운(good fortune)등에 의존하여 그들의 진로를 선호함이 밝혀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적 통제성향을 지녔든, 외적 통제성향을 지녔든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을 적절히 자신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에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둘째는 행동주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개인의 행동양식이다. Young(1988)은 개인의 행동양식을 강화행동(empowering behavior)과 적응행동(enabling behavior)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행동양식과 우연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강화행동은 이전 행위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기 때문에 결정적이고 예언가능하다. 반대로 적응행동은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래 상황적이다. 직업선택에 대한 설명에서 이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강화행동(empowering behavior)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적격자이다', '나는 나를 후원하는 친구가 있다'는 식이며, 적응행동(enabling behavior)을 하는 사람은 '나는 광고를 보았고 즉시 이력서를 제출 하였다', '나는 진정한 조

언자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상사가 정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었다' 식으로 각각 행동한다. 즉, 적응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이 보다 더 자신의 직업선택시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을 진로발달에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이다(Cabral & Salomone, 1990:11).

셋째는 개인의 자아개념이다.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주변상황속에서 사건과 사람을 인지하는 일종의 여과기 역할을 함으로, 각 개인은 자아개념에 의해 접하는 정보를 기억하게 된다(Kihlstrom, 1981). 개인은 자아개념에 의해 사건이나 사람을 대하는 일종의 원형(protoptype)이나 인지 스키마(cognitive schema)를 형성하게 된다(Kuiper & Denny, 1981).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형성된 그들의 자아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들의 행동을 하게 마련이며(Niedenthal, Centor & kihlstrom, 1985), 진로나 직업 선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마련이다.

Markham(1983)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경험을 인지하는 자신의 스키마에 의하여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민족감이나 진로변화는 자신의 자아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적 능력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적으로 Markham은 진로과정을 직업이나 인생의 모습을 변화 시키기 위한 직업적 자아개념(vocational self-concept)의 역동적 수용과정이라고 언급했다.

Super(1957)의 진로발달 모형에서도 '진로는 개인의 자아개념의 표현(실천)이다'라는 전체 하에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Super의 진로발달단계 모형에 의하면 개인은 흥미, 능력, 그리고 가치관 등을 토대로 직업적 자아개념을 발전시키며; 직업 탐색활동을 통하여 자아개념을 점검하고; 40대 후반이나 50대의 진로유지 단계에서는 자아개념을 더욱 세련화시키고 성장시키며; 퇴직시에는 자아개념이 쇠퇴하는 단계를 밟는다.

즉, 개인의 진로발달은 곧 자아개념의 발달단계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자아개념에 대한 이와같은 관점과 우연한 기회를 연결시켜 보면, 잘 발달된 개인의 자아개념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나 만남의 의미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여과기능을 가지게 되며, 반면에 잘못 형성된 자아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기치 않았던 정보로 인한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IV. 끝맺는말: 진로발달 및 상담에 주는 시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기치 않거나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만남을 의미하는 우연한 기회(chance)는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동시에 진로의사 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개인의 진로의사 결정은 온전히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만도, 그리고 우연한 기회의 영향에 의해서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계획과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의 조합에 의하여 개인의 진로발달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셋째,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발생한 시기와 상황에 좌우된다.

넷째, 개인이 '우연한 기회(chance)'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천차만별하다. 개인은 자신이 접한 우연한 사건이나 만남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여러 요소(자아통제성향, 자아개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상의 내용이 진로발달이론 모형에 주는 시사점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완벽하게 인과관계 모델로 설명하려는 현재의 규범적 진로발달 모형이 우연한 상황이나 사건을 고려하는 '상황적 진로발달 모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연적인 요인'을 고려한 상황적 진로발달 모형이 가능한지는 논외로 두고자 한다. 우연성이 개인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침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어졌고, 밝혀졌음은 이론상으로는 새로운 발전적인 진로발달 모형(상황적 진로발달 모형)의 구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진로상담에 시사하는 점은 상담자는 내담자와 진로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상담할 때 적성, 흥미, 가치관 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건이나 만남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로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들이 그들의 과거 진로 의사결정의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미래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의 영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행동양식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부 내담자들은 진로의사 결정의 영향요인으로서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을 인식하지도 않으려 하며, 또한 자기의 과거를 말할 때 자신의 인생을 일관성있게, 질서 정연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여 우연적인 요소나 사건의 영향을 배제하려 한다(Cohler, 1982). 이와같이 사람들이 도식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진로상담자가 상담시 내담자로 하여금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시에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우연한 사건이나 만남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과거에 우연한 사건이나 만남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방법들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또한 내담자들이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미 진로상담에 대한 평생발달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진로의사 결정과정에서 개인적인 요소와 상황적인 요소의 영향을 함께 중요시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대한 각 개인의 이해력과

적용력은 실제적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기능, 가치관, 그리고 흥미들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각 개인이 자아개념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진로발달 및 선택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내적인 가치관의 확립과 주변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우연한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우연한 기회(chance)'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진로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더해 주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보다 풍부히 하도록 그리고 항상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V. 참고 문헌

1. Bandura, A. 1982. The psychology of chance encounters and life paths. *American Psychologist*, 37, 747-755.
2.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3. Bronfenbrenner.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7, 513-531.
4. Carbral, A. C. & P. R. Salomone. 1990. Chance and careers. *J. of Vocational Behavior* 39, 1-17.
5. Clausen, J. A. 1964. Personality measurement in the Oakland growth study. In J. E. Birren (Ed.), *Relationship of development and aging*(pp. 165-175).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6. Featherman, D. L. & R. M. Lerner. 1985. Photogenesis and sociogenesis: Problematics for theory and research about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across the life-span. *American Sociology Review*, 50, 659-676.
7. Hart, D. H., K. Raynor & E. R. Christensen. 1971. Planing, preparation and chance in occupational entry. *J. of Vocational Behavior*, 1, 279-285.
8. Krumbolts, J. D., A. M. Mitchell and G. B. Jones.

1976.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sele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71-81.
9. Markham, S. 1983. I can be a bum: Knowledge about abilities and lifestyles in vocational behavior. *J. of Vocational Behavior*, 23, 72-86.
10. Miller, M. J. 1983. The role of happenstance in career choice.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 16-20.
11. Osipow, S. H. 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2. Salomone, P. R. and R. B. Slaney. 1981. The influence of chance and contingency factors on the vocational choice process of non-professional workers. *J. of Vocational Behavior*, 19, 25-35.
13. Seligman, D. 1981. Luck and careers. *Fortune*, 104 (10), 60-72.
14.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Harper and Bross.
15. _____.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16. Vondracek, F. W., R. M. Lerner and J. E. Schilenberg. 1983.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vocational theory and intervention. *J. of Vocational Behavior*, 23, 179-202.
17. Young, R. A. 1988. Ordinary explanations and career theories. *J.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336-338.